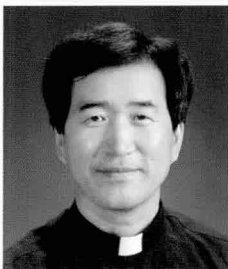


한국 임상사목교육의 발전 과제

I. 임상사목교육(CPE) 개인 여정

임상사목교육(CPE :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을 내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92년도 필리핀에서 수도회 소속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기간 중이었다. 국민의 80%가 가톨릭인 필리핀은 그때 이미 많은 교구나 수도회에서 사제나 수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임상사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나도 그 당시에 방학을 이용하여 주 5일, 매일 오전에는 그룹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환자를 방문하면서 11주간 집중 임상사목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나 자신을 성찰하며 바라보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 후, 사제 수품 후에도 임상사목교육에 대한 나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나 자신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임상사목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1년간 가졌다.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에서 원목자로 약 3년간을 사목한 후 다시 2004년부터 필리핀에서 약 3년간의 임상사목교육 수퍼바이저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수퍼바이저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적 그리고 사목적인 문제를 직면하였다.

그 중에서도 CPE 훈련을 통하여 내가 직면하였던 한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내가 무슨 일을 맡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하지? 잘 해 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하며 실수는 하지 않을까?" 등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사목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대되었고, 환자 방문을 주저하게 되면서, 실수를 통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배움의 길을 망설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지도하던 수퍼바이저가 정중하게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은 요즈음 환자 방문이 조금 뜸하네요." 하면서 은근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 네... 제가 환자를 방문하면서 실수를 할까봐...좀...그러네요..." 하며 얼버무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 수퍼바이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천금같은 질문 한마디를 나에게 던졌다.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환자를 방문하는 동안 실수를 하면 신부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김중오(아오스딩) 신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서울대교구 임상사목교육센터장



뒷줄에 서서 찍은 사람들은 수료하는 교육생들이고
 앞줄에 앉아서 찍은 사람들은 수료식 주례자 및 축하객 사진 왼쪽부터;
 1. 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부 담당사제 정진호 신부,
 2. 서울대교구 특수사목 분야 교구장 대리 최창화 몬시뇰
 3.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4. 서울대교구 임상사목교육센터 담당사제 CPE 슈퍼바이저인 필자 김중오 신부
 5. 서울대교구 임상사목교육센터 CPE 슈퍼바이저 최수복 수녀

‘실수를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계속 맴돌았고 마침내 나는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실수를 할까봐 미리 불안해 하는 나의 모습, 더 나아가 실수를 하면 내가 무가치함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나의 그러한 무가치함을 느낄까봐 두려워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함으로써, 결국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과, 사목자로서 돌보아야 할 대상인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방문 자체까지 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번갯불처럼 스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질문은 인간적으로, 사목적으로,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현주소를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임상사목교육 슈퍼바이저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은 한국교회로 돌아와 임상사목교육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투신하도록 다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II. 한국 가톨릭 임상사목교육에 대한 전망

아직도 한국 가톨릭에서는 임상사목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 가톨릭 교회의 임상사목교육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골롬반회 소속의 외국인 사제들에 의해서 조금씩 소개되었다. 그 당시 임상사목교육을 받으며 좋은 인상을 받고,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 서울대교구의 몇몇 사제들은 이러한 임상사목교육이 한국에서 더욱 발전되기를 염원하였다.

지난 2007년 11월 17일 서울대교구가 임상사목교육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서울대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으로써 처음으로 임상사목교육센터가 설립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서울대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위기에 처한 환자들을 돌보는 원목자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서울대교구 임상사목교육센터

서울대교구 임상사목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사목교육 프로그램은 삶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원목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특별히 병원에서 전인적 치료를 위한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목자에게 혹은 사목자들에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숙달하고 훈련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개인적 영역과 전문적 영역 그리고 신학적 영역 등으로 나눈다. 원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에서 현재 원목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영역 중에, 지면상 특히 임상사목교육 기초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영역만 소개하면, 개인적 영역은 1) 교육생 자신의 장점과 한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하도록 하는 자아 인식 정도에 의해 증명되는 교육생의 행동-성찰 과정에 대한 숙련도, 2) 교육



▲ 2005년 8월 10일 홍콩에서 임상사목교육 아시아대회에서 필자와 함께한 필자의 수퍼바이저 과정을 지도한 벨기에 수녀 RitaVanDamme
 ▼ 2007년 11월 17일 서울대교구 임상사목교육센터 축복식 (주례-염수정 주교)

생이 하느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실재 증명, 3) 교육생이 연민으로 충만한 사목을 하는 데서 나오는 정서적 성숙함에 대한 증거, 4) 교육생이 지지하고, 직면하고 명료화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입증, 5) 자신의 사목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느낌과 태도, 가치, 가정 등에 대한 자각과 이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능력, 6) 개인적 통합성과 명확한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증, 7)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전을 받으면서도 창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요구하며 훈련을 하게 된다.

전문적 영역에서는 사목적 배려, 인간관계, 지도력, 전문적 책임성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영적 진단과 계획, 중재 및 평가 능력을 비롯하여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실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반영적 경청과 반응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사목적 전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기술, 임상 환경의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력, 공동협력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원목지들에게 요구하며 훈련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 본 것처럼 원목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목 영역이다. 한국의 임상사목교육이 한국에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사목교육이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사목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임상사목교육이 더욱 올바르게 전문적으로 한국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가톨릭 임상사목교육의 발전 과제

임상사목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임상사목교육에 대한 이해는 확산되고 있다. 임상사목교육 수퍼바이저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에 수도자를 파견한 수도회나 계획 중인 수도회가 늘어나는 등 임상사목교육이 점차로 발전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그 예이다.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 본다.

1) 임상사목교육 프로그램 및 수퍼바이저 양성 과정의 체계화 및 내실화

한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곳의 임상사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등은 수퍼바이저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자신들이 배운 협회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



▲ 2005년 8월 8일 홍콩에서 함께한 호주, 중국의 CPE 슈퍼바이저들
 ◀ 2006년 3월 필리핀 신장센터에서 슈퍼바이저 과정 중에 필자와 함께한 필자의 슈퍼바이저와 동료들

르게 실시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임상사목교육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상황으로 인해 CPE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임상사목교육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약화되거나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상사목교육 슈퍼바이저로 훈련시킬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양성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과정은 CPE 슈퍼바이저 개인 혼자서는 다른 슈퍼바이저를 선정하거나 훈련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내에서 공인된 CPE 슈퍼바이저들과 전문인들에 의해 공동으로 자격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상사목교육 프로그램 및 슈퍼바이저 양성 과정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원목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 임상사목교육 (Intensive CPE) 실시 필요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상사목교육은 교육생들이 임상사목교육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목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1 주일에 1~2회 만나서 1 unit에 18주간으로 연장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하여 임상사목교육이 앞서가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1 unit은 통상적으로 40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1 주일에 5일 매일 집중 임상사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 unit이 11주간(약 3개월)이 소요되며, 원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4unit의 집중 임상사목교육을 받게 된다.

집중 임상사목교육은 매일 오전에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각기 배정된 병원 병동에서 환자 방문을 한다.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사목교육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집중 임상사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써 기대하는 임상사목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리라 본다.

3) 양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임상사목교육

임상사목교육은 단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목자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목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특히 특수한 상황이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사목하는 사목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더 나아가 임상사목교육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더 나아가 CPE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임상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정신치료사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상담심리사와 영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실재사목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임상사목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사목을 하는 사목자들을 위한 실재 경험 교육이다. 실재 사목을 한 후 성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경험-성찰의 과정을 통한 배움이다. 한국 가톨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사목교육이 더욱 확산되어 많은 사목자들, 특히 삶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환자들을 돕는 원목자들이 병원에서 더욱 풍성한 주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